

주요 내용

1. [개신교인의 교회 인식 조사]

외로운 대한민국, 기독교인이 일반국민보다 덜 외롭다!

2. 최근 조사통계 언론보도

1) 보이스피싱 실태 및 인식

2) Z세대 라이프스타일 : 한국과 미국 비교



우리는 더 나은 정보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든다고 믿습니다

외로운 대한민국, 기독교인이 일반국민보다 덜 외롭다!

목회자 단체인 「사감과 섬김」의 부설 연구소인 '코디연구소'와 '국민일보'는 올 4월 기독교 전문여론조사회사인 (주)지앤컴리서치에 의뢰하여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개신교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한 조사를 실시했다.(링크 주소)

이 조사에서 국민들은 한국교회에 대해 겨우 18%만 신뢰할 정도로 불신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교계에 충격을 주었다. 이 가운데 비개신교인만 골라서 그들이 한국교회를 신뢰하는 비율을 뽑았더니 9%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한국교회는 비개신교인이 모두 거부하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낮은 수치였다.

다른 종교와 비교했을 때도 개신교는 다른 종교에 비해서 부정적으로 평가를 받았다. 천주교와 불교에 대한 호감도가 각각 65%와 66%였는데 개신교 호감도는 25%로 천주교와 불교의 절반 이하 정도 밖에 되지 않았다.

한국사회에서 개신교가 복지법인 운영, 봉사 단체 활동 전개 등 다른 종교보다 사회 봉사 활동을 더 활발하게 한다는 평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신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바닥까지 내려앉은 것이 현실이었다.

이에 '코디연구소'와 '국민일보'는 개신교인들은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알기 위한 필요성을 느끼고 개신교인 1000명을 대상으로 2차 조사를 8월에 실시하여 9월 7일에 국민일보 '더미션'에 게재했다.

<넘버즈 166호>에서는 이번 조사 결과 가운데 중요한 부분만 발췌해서 게재한다. 부디 이 분석이 한국 교회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파악하여 목회적 대안을 모색하는데 조금이라도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관련기사 : <https://www.themission.co.kr/news/articleView.html?idxno=56919>)

일러두기

- 본 리포트에서 사용한 자료는 저작권법을 준수합니다.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서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 응답 문항의 비율은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본 리포트는 저작권법에 의해 각각의 통계마다 그 자료의 출처(생산자)를 의무적으로 명기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인용하실 경우, 원자료 출처(생산자)와 목회데이터연구소 자료임을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개신교인의 교회 인식 조사

조사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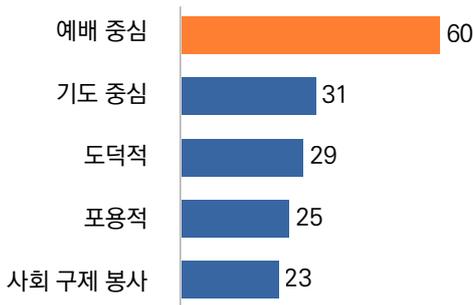
구 분	내 용
• 조사 대상	전국의 만 19세 이상 교회 출석 개신교인 남녀
• 조사 방법	온라인패널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조사(이메일을 통해 URL발송)
• 표본 규모	총 1,000명 (유효 표본)
• 표본 추출	지역/성/연령별 개신교인 비례할당 - 청년들의 의견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만 19세 이상 성인 800명과 만 19~34세 200명을 각각 조사한 후 두 표본을 합한 후 가중치를 부여함
• 표본 오차	무작위 추출을 전제로 할 경우, 95% 신뢰수준에서 $\pm 3.1\%p$
• 자료 처리	수집된 자료는 통계패키지 SPSS 18.0 for Windows로 분석함
• 조사 기간	2022년 8월 18일 ~ 8월 24일(6일간)
• 조사 의뢰 기관	사감과 섬김 코디연구소 / 국민일보
• 조사 수행 기관	(주)지앤컴리서치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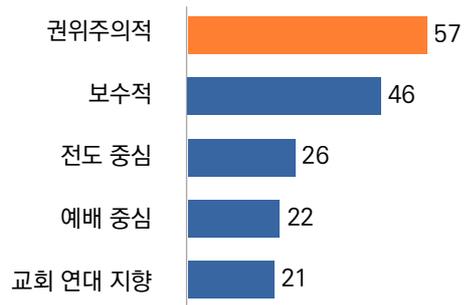
이상적 교회는 ‘(하나님) 예배 중심적’ 교회, 현실은 ‘(사람의) 권위주의적’ 교회!

- ▶ 교인들이 바라는 이상적 교회의 키워드는 예배 중심(60%), 기도 중심(31%), 도덕적(29%), 포용적(25%), 사회구제봉사(23%)였다. 하나님 중심(예배/기도 중심), 개인 도덕성(도덕적), 이웃 섬김(포용적, 사회구제 봉사)이 균형잡힌 교회를 이상적 교회라고 인식한 것이다.
- ▶ 그런데 현재 한국교회 모습은 이상적 교회와 달랐다. 한국교회를 묘사할 때 ‘권위주의적’(57%), ‘보수적’(46%), ‘전도중심(26%), ‘예배 중심’(22%) 순이었다. ‘권위적’, ‘보수적’은 사람의 전통을 중시하는 모습을 지적한 것이다.

[그림] 내가 바라는 이상적 교회 (상위 5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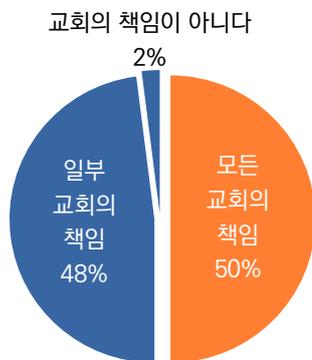
[그림] 현재 한국교회 모습 (상위 5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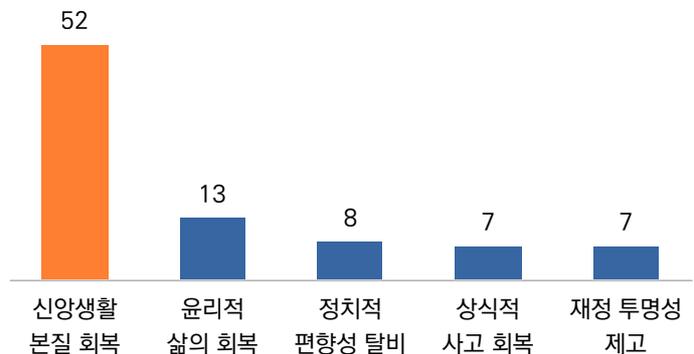
◎ 기독교 이미지 회복 방안, ‘신앙생활 본질 회복’ 52%!

- ▶ 교회의 부정적 여론에 대해 책임을 다른 데로 돌리지 않고 자기를 포함한 모두의 책임이라는 인식(50%)을 보인 것은 한국 교회의 미래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 ▶ 기독교 이미지 추락이 도덕성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이미지 회복의 계기를 ‘윤리적 삶의 회복’이라는 도덕적 차원에서 찾지 않고 ‘신앙생활의 본질 회복’이라는 신앙적 차원에서 찾는 것은 문제의 핵심을 짚었다는 점에서 문제 해결의 방향을 잘 짚은 것이다.

[그림] 교회의 부정적 여론에 대한 책임 소재에 대한 인식



[그림] 기독교 이미지 회복을 위해 시급한 것 (상위 5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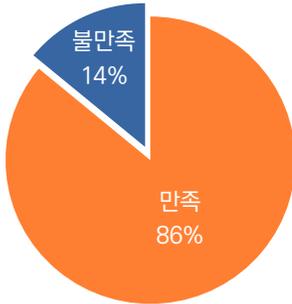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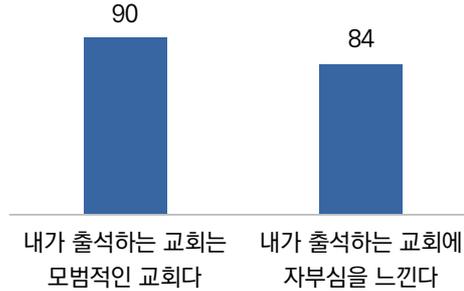
교인들은 자기 교회 충성심이 강하다!

- ▶ 한국교회 교인들은 자신이 출석하는 교회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다(86%). 또한 자기 교회가 모범적인 교회(90%)라고 느끼며 자부심(84%)도 느낀다고 할 정도로 충성심도 강하다.
- ▶ 그런데 지난 4월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한국교회 신뢰도 조사에서 개신교인 가운데 한국교회를 신뢰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64% 밖에 안된 것과 비교하면 한국교회 교인들은 자기 교회에 대한 사랑이 과도하게 크거나 아니면 한국교회에 지나치게 비판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림] 출석 교회 만족도*



[그림] 출석 교회에 대한 인식* ('그렇다' 응답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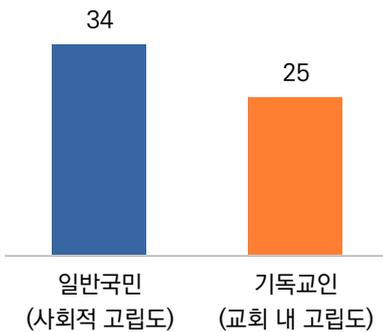


*각각 4점 척도 질문으로 만족(매우+약간) / 불만족(전혀+별로) / 그렇다(매우+약간) 비율임

◎ 어려울 때 의지할 곳은 교회이다!

- ▶ 교회 내 고립도(고립도는 아래 설명 참조)는 25%로 사회에서의 고립도 34%보다 낮다.
- ▶ 이것은 도움이 필요할 경우 교회 내에서 도움을 청할 사람이 많다는 뜻으로 그만큼 위기 상황에서 교회가 의지가 된다는 뜻이다.

[그림] 사회적 고립도* (일반국민 vs 기독교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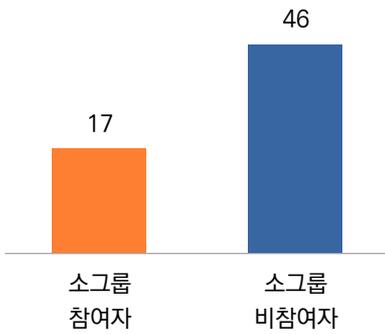
*통계청은 우리나라 국민 중 '집안 일을 부탁하거나', '이야기 상대가 필요한 경우' 둘 중 하나라도 도움을 받을 곳이 없는 사람의 비율을 계산하여 이를 '사회적 고립도'라고 명명하여 매년 조사함.

본 조사에서는 사회적 고립도를 응용하여 교회내에서 '집안일을 부탁하거나', '이야기 상대가 필요한 경우' 도움을 받을 곳이 모두 없는 사람의 비율을 계산하여 이를 '교회 내 고립도'라고 명명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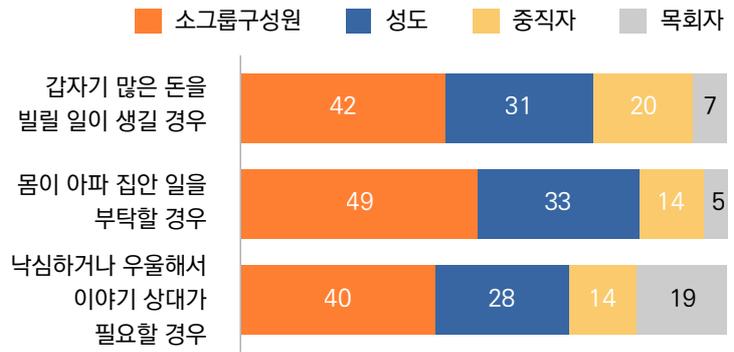
◎ 소그룹, 교회가 공동체로서 작용하는데 핵심!

- ▶ 소그룹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소그룹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보다 덜 외롭다.(고립도 : 소그룹 참여자 17%, 소그룹 비참여자 46%)
- ▶ 그 이유는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은 주로 소그룹 구성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그룹은 교회가 공동체로서 작용하는데 핵심이다.

[그림] 소그룹 참여 여부에 따른 교회 내 고립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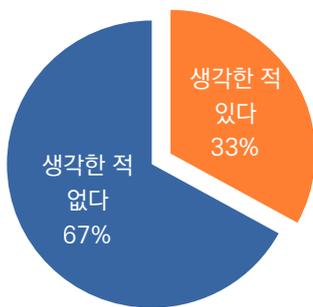
[그림] 도움이 필요할 경우 교회에서 도움을 청할 사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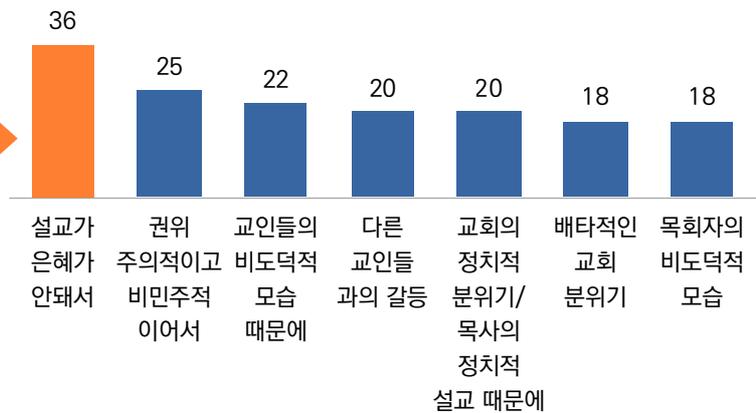
03 교회의 '권위주의'와 '비민주성'은 교인들을 교회에서 떠나게 한다!

- ▶ 충성심이 강한 한국교회 교인이라도 교회 출석자 3명 가운데 1명은 교회를 옮길 생각을 한 적이 있다.
- ▶ 교회를 옮길 생각을 하게 된 데에는 '설교'(36%)가 가장 큰 요인이지만 '교회의 권위주의와 비민주성'(25%)도 한 몫을 차지했다.
- ▶ 교회에서의 인간 관계 문제(다른 교인들과의 갈등 20%, 배타적인 교회 분위기 18%)도 교회 이탈 이유 가운데 하나이다.

[그림] 다른 교회로 옮길 생각*



[그림] 다른 교회로 옮기겠다는 이유 (1+2순위, 중복응답, 상위 7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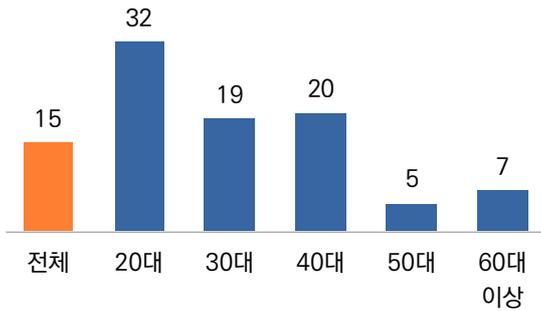


*4점 척도 질문으로 있다(자주+가끔), 없다(전혀+별로) 비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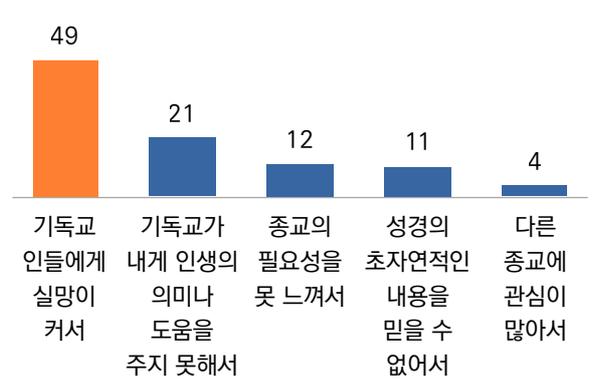
◎ 기독교인들에게 실망해서 '신앙을 버릴 생각한 적 있다', 15%

- ▶ 일부(15%)의 교인들은 기독교 신앙을 버릴 생각을 한 적 있다. 특히 20대 청년의 경우 32%까지 치솟고 있다.
- ▶ 신앙을 버리겠다고 생각한 이유는 '성경의 초자연적인 내용을 믿을 수 없어서'(11%), '기독교가 인생의 의미나 도움을 주지 못해서'(21%)와 같이 신앙 그 자체에 대한 실망보다는 '기독교인들에게 실망이 커서'(49%)와 같이 사람들에게 실망한 이유가 더 크게 나타났다.

[그림] 기독교 신앙을 버릴 생각 '있다' 비율 (연령별, %)*



[그림] 신앙을 버릴 생각을 한 이유 (%)



*4점 척도 질문으로 '생각한 적 있다'(자주+가끔) 비율임

04

나아지지 않는 교회에서의 남녀 평등!

- ▶ 한국 사회 주요 영역에서 교회가 가장 남녀 평등이 이루어진 곳으로 응답했다.(58%) '누구 엄마'로 불리던 여성이 독립된 주체로서 활동을 할 수 있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인 남녀 평등이 가장 잘 이루어진 곳으로 교회를 응답한 것으로 보인다.
- ▶ 2018년 조사와 비교하면 다른 영역은 적게는 약 5%p, 많게는 약 15%p 증가했는데 교회만 나아졌다는 인식이 없었다.

[그림] 한국사회 주요 영역에서 남녀가 평등하다고 느끼는 비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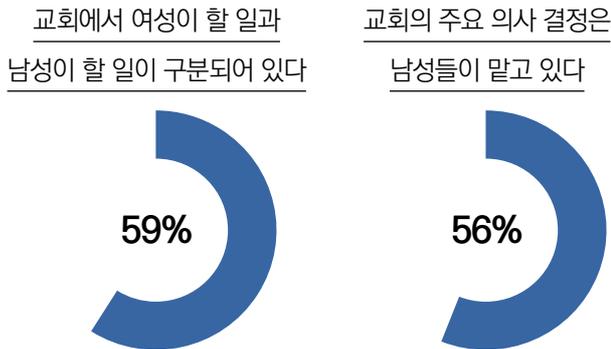
*자료 출처 : 한국교회탐구센터, '성평등에 대한 기독교인 인식 조사'(전국 만19세 이상 교회 출석 개신교인, 1000명, 온라인 조사, 2018.03.23.~0402)

**1~9점까지 척도에서 '여성이 매우 불평등 하다'(1점) ~ '남성이 매우 불평등 하다'(9점)으로 응답하며, '남녀평등하다'는 중간치인 '5점' 응답 비율임

◎ 교회에서 성별에 따른 역할 차이가 차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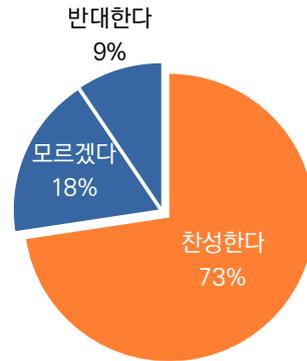
- ▶ 교인들은 교회에서 여성의 일과 남성의 일이 구분되어 있다(59%)고 응답했다. 더욱이 주요 의사 결정권은 남자에게 있다(56%)고 응답했다. 성 역할 차이가 곧 차별이다.
- ▶ 하지만 교인들은 의사결정권에서도 남녀가 공유해야 한다(여성 안수 찬성 73%)고 인식하고 있다. 즉 제도가 의식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이 지체 현상(제도가 의식을 따라가지 못하는 현상)이 해결되지 않으면 교회의 남녀 평등 개선에 한계가 있다.

[그림] 교회에서 남녀의 성 역할 ('그렇다' 응답률)*



*4점 척도로 '그렇다'(매우+약간) 비율임

[그림] 여성목사/장로에 안수에 대한 찬반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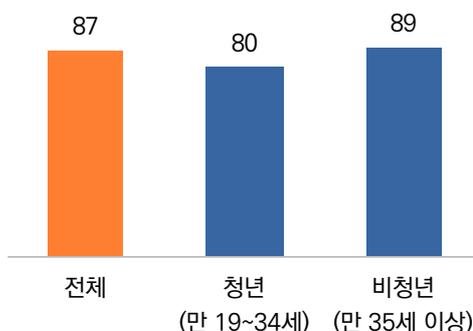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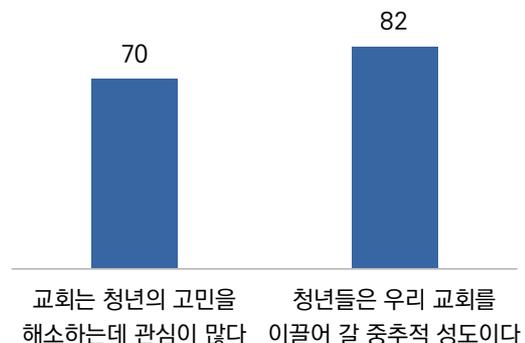
교회는 청년에게 관심이 많다!

- ▶ 교인 대다수는 교회가 청년에 대해 관심이 많다고 생각한다.(87%)
- ▶ 청년 자신들도 교회가 청년에게 구체적인 측면, 즉 '청년의 고민을 해소'하는 것까지 관심을 갖고 있다고 응답했다.(70%)
- ▶ 그런데 교회가 청년에게 관심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청년이 아닌 사람, 즉 중장년(89%)보다 청년(80%)이 더 적었다. 교회의 청년에 대한 관심을 청년이 느끼는 것보다 중장년이 더 과대 평가하는 것을 조심해야 한다.

[그림] 교회의 청년에 대한 관심 ('관심있다' 응답률, %)*



[그림] 교회의 청년에 대한 인식 (청년 응답자, '그렇다' 응답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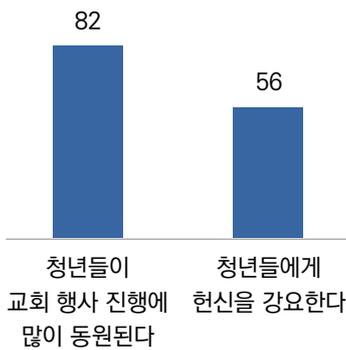


*각각 4점 척도 질문으로 '관심있다'(매우+약간)와 '그렇다'(매우+약간) 비율임

◎ 청년들은 교회 일꾼보다 주체가 되고 싶다

- ▶ 교회에서 청년의 위상은 어떻게 될까? 청년들은 교회는 자신들을 교회 행사(82%)와 사역의 일꾼(56%)으로 대하는 경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 ▶ 하지만 청년들은 교회의 중요한 의사 결정에 참여하고 싶어한다.(90%)
- ▶ 왜냐하면 자신들도 교회 구성원의 하나이므로(62%) 당연한 주체로 서고 싶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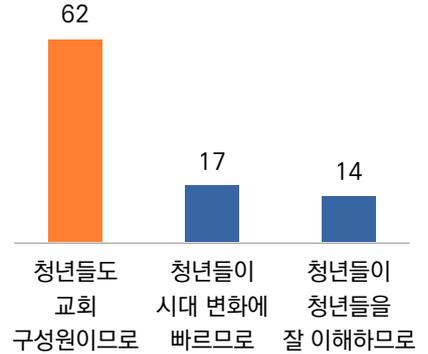
[그림] 교회에서 청년의 위상 (청년응답자, '그렇다' 응답률, %)*



[그림] 청년의 교회 의사 결정 참여 (청년 응답자)*



[그림] 청년의 교회 의사 결정 참여 찬성 이유 (청년 응답자, 상위 3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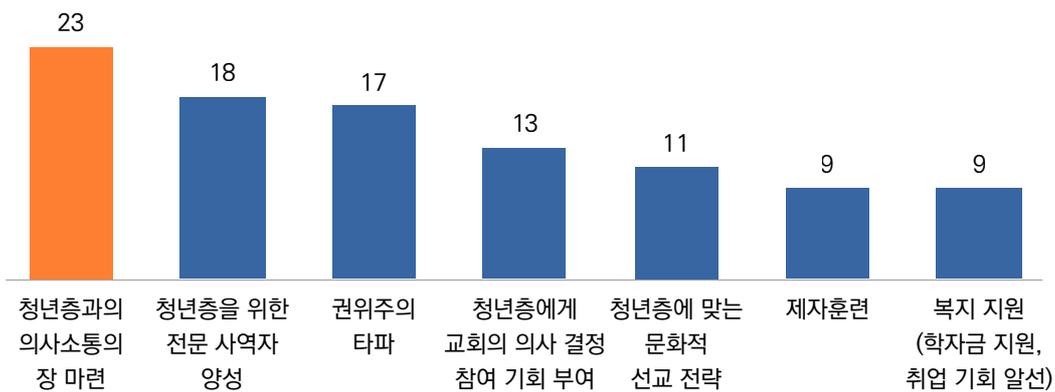


*각각 4점 척도 질문으로 '그렇다'(매우+약간), '찬성'(적극+약간) / '반대'(적극+약간) 비율임

◎ 청년 활성화를 위해서 '청년들에 대한 인식 교정'이 먼저다!

- ▶ 청년들은 청년 활성화 정책으로 '청년층과의 의사소통의 장 마련'(23%), '권위주의 타파'(17%), '청년층에게 교회의 의사결정 참여 기회 부여'(13%)를 주로 응답했다. 이러한 응답의 밑바탕에는 청년들이 자신을 교회의 일원으로서 대등한 존재로 여겨달라는 인식이 있다.
- ▶ 청년층을 위한 전문 사역자 양성도 청년들이 자신들을 이해해 달라고 하는 요구로 보인다.

[그림] 청년 활성화 방안 (청년 응답자, %)



1. 한국교회 성도들은 자신에 대한 객관화 노력이 필요하다.

한국 사회 변화와 작동 구조를 연구한 학자들 가운데는 그 핵심에 가족주의가 있다고 지적한 학자들이 있다. 서구에서는 프로테스탄트 윤리가 자본주의 발전의 계기였다면 한국이 1960~1980년대에 겪은 경제 성장은 가족주의가 동력을 제공했다는 분석이다. 가족을 위해 자신을 희생해 가면서 열심히 일한 결과가 오늘날의 경제 성장을 가져왔다는 것이다. 그런데 한국 가족주의의 특징은 내 가족과 남의 가족을 구분짓는 기제로 작용했다. 내 가족 중심성이 강화되면서 반대로 타인을 배려하는 것이 약화되었다. 내 가족의 이익과 성공을 제일의 목표로 삼고 이에 집중하는 과도한 가족주의, 이데올로기화한 가족주의가 공공성을 약화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한 것이다.

가족주의는 내 가족과 남의 가족을 철저히 분리한다. 내 가족이라면 자식 교육을 위해서라는 명분으로 위장 전입을 하거나 봉사 활동 점수를 따기 위해 실제로 하지 않은 봉사 활동을 한 것으로 만들거나, 실제보다 부풀려진 봉사 활동 경력 증명서를 거리낌 없이 만든다. 하지만 남이 그런 짓을 했다면 거침없이 가혹한 비판을 한다. 이처럼 내 가족과 남의 가족을 나누고 이중 잣대를 적용하는 것이 가족주의의 병폐이다.

가족주의가 사회적으로 외연이 넓어지면 내 교회와 남의 교회를 구분하고 내 교회는 관대하게 이해해 주는 한편, 남의 교회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게 된다. 이번 조사에서 한국교회 성도들이 한국교회에 대해 신뢰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64%였고 자신이 출석하는 교회에 대해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6%나 되었다. 만족도와 신뢰도가 다른 개념이기는 하지만 두 수치 간에 차이가 너무 크다. 이것은 자기 교회를 과도하게 평가하든지 아니면 한국교회를 지나치게 폄하하든지 둘 중의 하나일 것이다.

따라서 한국 교회 변화는 자기 객관화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잘못을 지적하는 손가락이 남을 향해 있는 한, 자기 교회에서부터 개혁이 시작되지 않는 한 한국 교회의 변화는 기대하기 어렵다.

2. 한국교회는 사회와 교회의 지체 현상을 극복해야 한다.

기독교가 유입된 조선말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한국 사회는 기독교, 교회가 주도했다. 근대적 계몽 운동의 시발점이 교회였으며, 한국 사회에서 교육과 복지, 교회 배면 불모지나 다름없었다. 또 엄혹한 독재 정권 하에서 교회가 민주화 운동의 교두보, 선봉장 역할을 했다. 한국 사회를 교회가 선도할 수 있었던 것은 교회의 의식이 사회보다 앞서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이제 시대가 달라져서 교회가 사회를 선도하는 경우가 별로 없게 되었다. 여전히 복지 분야에서는 한국 교회가 기여하는 바가 많지만 성도들의 의식이 사회를 쫓아가지 못하거나 성도들의 의식을 교회 제도 및 교회 지도층의 의식이 따라가지 못하는 '문화 지체'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번 조사 결과를 보면 한국 교회의 약점 가운데 하나는 교회의 비민주성, 권위주의였다. 교회가 가장 민주화된 제도와 의식을 가진 기관이었는데 이제는 시대에 동떨어진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또 사회의 다른 영역에서는 양성평등의 진전이 일어났으나 교회에서는 여성들을 남성과 동등한 역할로 대우하는 구조 변화를 하지 않으면서 교회에서의 양성 평등은 별로 개선되지 않았다. 청년들을 아직 배워야 할 존재로 여기게 보거나 그들을 교회의 일꾼(교사, 성가대 등)으로 부르면서도 그들에게 교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중장년 교인과 동등한 권리를 주지 않았다.

문화 지체 현상을 보이는 교회에 대해 젊은 세대들은 자기들의 언어로 '후지다', '꼰대스럽다'라고 한다. 비록 그런 비난을 받더라도 교회가 고수하고 요구하는 것이 진리이고 옳은 것이라면 세상의 비난과 조롱을 견뎌내야 하는 것이지만 과거의 전통, 사람들의 생각 때문에 받는 비난이라면 교회가 세상과 같이 호흡하거나 교인들의 의식에 맞춰 교회 제도를 바꿔야 한다. 그래야 청년이탈을 막을 수 있으며 교회가 지금보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들 수 있다.

1.[보이스피싱 실태 및 인식]

2.[Z세대 라이프스타일 : 한국과 미국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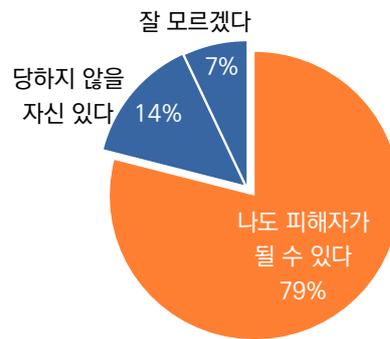
보이스피싱 피해액, 5년 새 2,400억 원→ 7,700억 원으로 3배 이상 급상승!

- ▶ 최근 발표된 KBS와 공영미디어연구소 조사팀의 '보이스피싱 조사' 결과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피해 규모는 2022년 피해액 7,700억 원으로 5년 전인 2017년 2,400억 원 대비 3.2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 보이스 피싱 관련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였는데 본인이 보이스피싱 등 전자금융사기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묻은 결과, 10명 중 8명(79%)은 '나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나 국민 대부분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있었다.

[그림] 보이스피싱 피해액 (원)



[그림] 본인이 보이스피싱 등 전자금융사기 피해자가 될 가능성(일반국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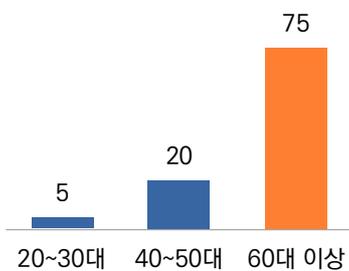


*자료 출처 : KBS뉴스, '보이스피싱, 정말 안 당할 자신 있나요?' 기사 참조, 2022.09.04.(KBS 공영 미디어연구소 조사팀,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4명, 인터넷 조사, 2022.08.29.~8.30) (<https://mn.kbs.co.kr/mobile/news/view.do?ncd=55487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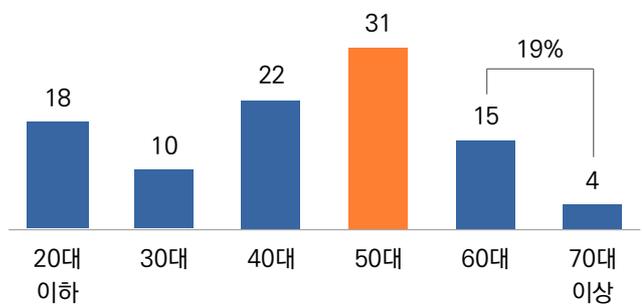
◎ 실제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60대 이상 노인'보다 40~50대 중년층이 더 많아

- ▶ 보이스피싱 등의 주요 피해자가 누구일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75%가 '60대 이상 노인'을 꼽았다.
- ▶ 하지만 지난해 실제 보이스피싱 피해자 연령대를 보면 '50대'가 31%로 가장 많았고, '40대'와 '20대 이하'가 각각 22%, 18%로 그 뒤를 이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절반 이상(53%)이 4050인 점이 주목된다. 반면 60대 이상 노인의 실제 피해율은 19%에 불과해, 노년층보다 40~50대 중년층에서 더 많은 피해자가 나오고 있다.

[그림] 보이스피싱 등의 주요 피해자 인식 (%)



[그림] 실제 보이스피싱 실제 피해자 분포 (연령별, %)



*자료 출처 : KBS뉴스, '보이스피싱, 정말 안 당할 자신 있나요?' 기사 참조, 2022.09.04.(KBS 공영 미디어연구소 조사팀,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4명, 인터넷 조사, 2022.08.29.~8.30) (<https://mn.kbs.co.kr/mobile/news/view.do?ncd=55487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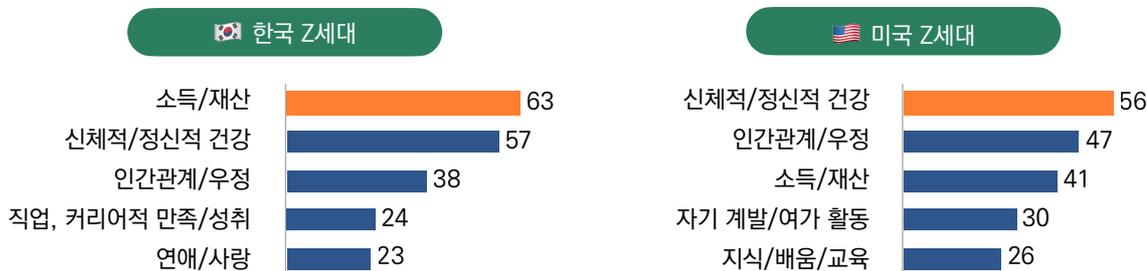
Z세대는 어릴 때부터 스마트폰을 접한 모바일 네이티브 세대를 지칭하는 표현이다. 즉 스마트폰이 본격적으로 상용화하기 시작한 2000년대 후반부터 중학생 시절을 보낸 세대(1990년대 중반생)가 Z세대이다. 최근에 조사전문기관인 오픈서베이에서 한국과 미국의 Z세대, 즉 1997년~2007년생의 인식을 비교 조사하여 그 결과를 발표했는데, 목회자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커, 정리해서 소개한다.



행복의 필수요소, 한국 Z세대 '소득/재산' vs 미국 Z세대 '건강'과 '우정' 중요!

- ▶ 행복한 삶을 위한 필수요소를 한국과 미국 Z세대들에게 물어보았다. 한국은 '소득/재산'(63%)을 가장 중요 요소(1위)로 꼽은 반면, 미국 Z세대는 행복한 삶을 위해 '신체적/정신적 건강'(56%)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다. 한미 Z세대간에 가치관이 얼마나 다른지를 보여주는 데이터이다.

[그림] 행복한 삶을 위한 필수 요소 (1~3순위, 상위 5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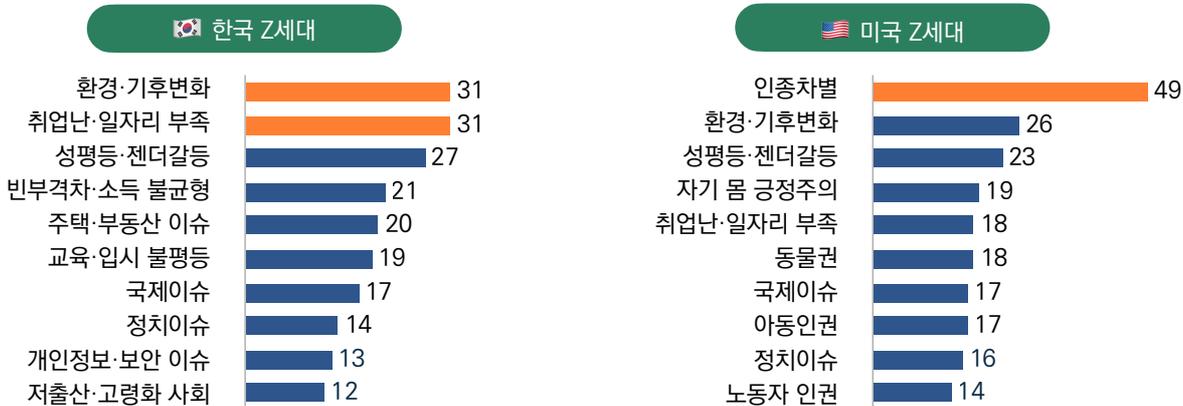


*자료 출처 : 오픈서베이, Z세대 트렌드 리포트 2022, 2022.09.(한국, 미국에 거주하는 1997~2007년생 남녀 각각 220명, 204명, 모바일 조사, (한국) 2022.07.18./ (미국) 2022.08.16.~18)

◎ Z세대가 관심 갖는 사회 이슈? 한국은 '환경·기후변화/일자리', 미국은 '인종차별'!

- ▶ 양국 Z세대가 관심을 갖는 사회 이슈를 보면 한국 Z세대는 '환경·기후변화'(31%)와 '취업난·일자리 부족'(31%)에 가장 높은 관심을 보인 데 반해, 미국 Z세대는 절반(49%)인 점이 특징적이다.
- ▶ 또한, 미국 Z세대는 '자기 몸 긍정주의(Body Positivity)(19%)'와 '노동자 인권'(14%)에 대해 민감하고 관심이 높은 점도 눈에 띈다. 해당 항목에 대한 한국의 관심사는 각각 1%, 4%에 그쳐, 두 나라 간 큰 인식차이를 보였다.

[그림] Z세대의 관심 있는 사회 이슈 (1~3순위, 상위 10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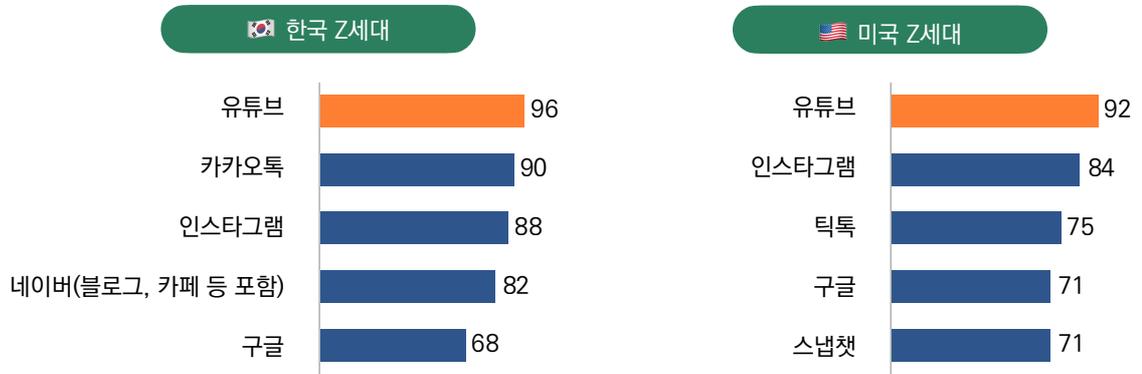


*자료 출처 : 오픈서베이, Z세대 트렌드 리포트 2022, 2022.09.(한국, 미국에 거주하는 1997~2007년생 남녀 각각 220명, 204명, 모바일 조사, (한국) 2022.07.18./ (미국) 2022.08.16.~18)

◎ 현재 이용하는 소셜미디어, 한국과 미국 Z세대 모두 ‘유튜브’ 이용률 1위!

- ▶ 한국과 미국 Z세대들은 어떤 소셜미디어/SNS를 사용하고 있을까? 두 국가 모두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국의 경우 카카오톡 (90%, 2위), 미국은 (틱톡 75%, 3위)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특징을 보였다.

[그림] 현재 이용하는 소셜미디어 / SNS (중복응답, 상위 5위, %)



*자료 출처: 오픈서베이, Z세대 트렌드 리포트 2022, 2022.09.(한국, 미국에 거주하는 1997~2007년생 남녀 각각 220명, 204명, 모바일 조사, (한국) 2022.07.18./ (미국) 2022.08.16.~18)

*아래 밑줄의 제목을 누르면 해당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를 누른 후 언론사 메인 페이지가 보인다면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 정치

[데일리 오피니언\(한국갤럽\) 제517호\(2022년 10월 4주\)](#)

-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정당지지도, 평소 축구 관심 정도 등

◎ 사회 일반

[8월 출생 2만 1758명...자연감소 8243명\[그래픽뉴스\]](#)

노컷뉴스_2022.10.26.

[코로나19 업무 맡은 간호사 57% 아직 고민](#)

연합뉴스_2022.10.27.

[탈북민, 코로나19에도 소득·고용 늘었지만 여전히 열악](#)

연합뉴스_2022.10.25.

[직업계고 취업률 58%, 소폭 상승...10명 중 4명은 1년내 '퇴사'](#)

중앙일보_2022.10.26.

[외국인 주택 투기 현황\[그래픽뉴스\]](#)

노컷뉴스_2022.10.28.

◎ 청소년 / MZ세대

[청소년 마약 범죄 증가한다는데...얼마나 늘고 있나](#)

연합뉴스_2022.10.27.

[대학생 10명 중 6명 "구직이요? 단념했습니다..."](#)

매일경제_2022.10.23.

["은둔 청년은 설거지도 무섭다"...고독사만큼 무서운 '고독생'](#)

중앙일보_2022.10.28.

◎ 기후 환경

[최후 방어선 1.5도인데...유엔 "이대로면 지구온도 2.5도 상승"](#)

한겨레_2022.10.27.

◎ 트렌드

[절대 그냥 지나칠 수 없는 Z세대의 다양한 픽](#)

주간동아_2022.10.27.

["라인·텔레그램도 쓰자" 카톡과 함께 이용 '멀티호밍' 바람](#)

중앙일보_2022.10.22.

*아래 밑줄의 제목을 누르면 해당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를 누른 후 언론사 메인 페이지가 보인다면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 **경제**

[정규직-비정규직 임금 격차, 5년째 사상 최대 행진](#)

조선일보_2022.10.25.

[20~24세 취업자 줄었는데 고용률 ↑ ...인구감소 역풍 본격화](#)

중앙일보_2022.10.25.

[수도권 아파트 분양가 43%는 땅값...지방은 절반 수준인 21%](#)

동아일보_2022.10.27.

◎ **건강**

[65세 전 치매 진단땀 극단선택 확률 2.8배... 3개월 관심이 비극 막는다](#)

조선일보_2022.10.19.

[○○만 관리해도...치매 위험 낮아진다](#)

동아일보_2022.10.27.

◎ **기독교 / 종교**

[중국 선교 먹구름... '기독교판 일대일로' 확산 우려](#)

더미션(국민일보)_2022.10.27.

◎ **기획기사 : 빅테크 달라진 일터, (연합뉴스)**

[1. 직장의 해체?...2~3일 출근 '하이브리드 근무' 대세](#) _2022.10.24.

[2. "오늘 시애틀, 내일 LA"...재택 넘어 원격근무](#) _2022.10.24.

[3. 효율성과 '이직 엑소더스' 사이...기업들 딜레마](#) _2022.10.24.

[4. '하이브리드 근무' 지속 가능?...성과·효율성이 관건](#) _2022.10.24.

◎ **칼럼**

[멘토링 프로그램을 의무화해야 하는 이](#)

인터비즈_2022.10.20.

| 후원 교회 |

강남중앙침례교회, 거룩한빛광성교회, 고현교회, 과천교회, 광림교회, 광주다일교회, 꿈마을엘림교회, 꿈의교회, 노량진교회, 다운교회, 당진동일교회, 대전선창교회, 도원동교회, 동부광성교회, 동행한빛교회, 둔산성광교회, 마산성산교회, 만나교회, 맑은샘교회, 문호교회, 미디어이터교회, 밀양남부교회, 부천명성교회, 베다니교회, 빛과소금교회, 사랑감리교회, 상도중앙교회, 삼천포교회, 상암교회, 서대문교회, 서영교회, 서울드림교회, 서울서교회, 서울서문교회, 서울중앙교회, 서현교회, 성락성결교회, 소망교회, 송학대교회, 수원중앙침례교회, 순복음춘천교회, 새에덴교회, 세광교회, 아현장로교회, 안산제일교회, 안양감리교회, 에덴교회, 여의도순복음교회, 연동교회, 예은교회, 예향교회, 오류동성결교회, 오류교회, 올리브교회, 울림교회, 원동교회, 은평교회, 이룸교회, 일동동부교회, 일산광림교회, 일산세광교회, 제주연동서부교회, 조양중앙교회, 주안장로교회, 지구촌교회, 진주삼일교회, 진주성결교회, 충신교회, 창동염광교회, 토평교회, 포항대도교회, 포항제일교회, 하나마을교회, 한국중앙교회, 한소망교회(가나다 순) 천주교수원교구 호계동 성당

| 후원 기관 |

고려신학대학원, 교회성장연구소, 기독교대한감리회 삼남연회, 기독교한국침례회총회, 기독교선교햇불재단, 기아대책, 마을학연구소, 방과후교회학교, (사)교회갱신협의회, (사)아시아미션, 서대문ESF, 서울노회아동부연합회(예장통합), (사)새길과새일, 아드폰테스(예장 통합 목회자 모임), 알파코리아, 지앤컴리서치, 한국교회탐구센터,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한목회, 한빛누리, 한일연합선교회, CBMC 광주지식포럼, CBMC 행복한지회, CCC 사역연구소, GoodTV, IFCJ 가정의 힘(가나다 순)

| 후원 기업 |

(주)가인지캠퍼스, (주)그랑블루, (주)리서치랩, 메가리서치, (주)삼신테크, 스페이스허브, (주)시스코프, (주)자연인(아이소이), (주)참든건강과학, (주)참물류, (주)하츠/(주)벽산 (가나다 순)

| 후원 개인 |

가우진, 강영원, 고영관, 고영수, 고인구, 고재환, 고현권, 구봉관, 구영생, 구정오, 권순홍, 김관상, 김기혁, 김동하, 김명준, 김상래, 김상로, 김석철, 김성열, 김성민, 김성식, 김성은, 김숙정, 김시은, 김영철, 김영훈, 김용섭, 김윤철, 김윤환, 김은선, 김은진, 김재욱, 김주형, 김지한, 김현모, 김형태, 김호아, 김홍일, 김홍기, 계만석, 나광균, 남기환, 남성태, 류선자, 류지성, 문성준, 박건호, 박노석, 박명규, 박미경, 박상운, 박세웅, 박영철, 박영호, 박재찬, 박종철, 박종현, 박준상, 박준하, 박지훈, 박진철, 박찬주, 박철호, 박현욱, 박형철, 박홍래, 반기민, 반상명, 방승기, 배수정, 백인범, 백인철, 서연우, 서재승, 서해현, 석승호, 석진호, 선원규, 성창민, 송오뜸, 신명자, 신인순, 신지현, 심기식, 안정호, 안태근, 양수민, 엄정식, 여삼열, 오수철, 우애라, 유성민, 유승우, 유영민, 유형창, 윤동하, 윤여민, 윤영조, 윤치호, 이경만, 이국희, 이광호, 이대식, 이만민, 이미경, 이병희, 이삼열, 이상호, 이성근, 이성수, 이성진, 이승철, 이영선, 이완중, 이요셉, 이윤찬, 이은라, 이인성, 이일영, 이재열, 이정규, 이정아, 이주일, 이지형, 이창현, 이창형, 이춘봉, 이 현, 이현구, 이현식, 이호택, 이훈희, 이희석, 임성빈, 임현주, 장명희, 장병우, 장부식, 장성진, 장우성, 장재영, 장형철, 전병철, 전용림, 전치영, 정기목, 정부활, 정용철, 정종권, 정종섭, 정 준, 정하규, 정희수, 조병길, 조용민, 조의환, 조준환, 조창오, 주학선, 지도환, 지연희, 지용선, 지중배, 진범수, 지현일, 차용현, 차원숙, 천성환, 최명영, 최상도, 최상현, 최용기, 최은아, 최 준, 최준혁, 최태영, 최항재, 최현갑, 한병록, 한재웅, 한진광, 한홍근, 함용태, 호재민, 홍의숙, 홍현풍, 황태기, Clara Yoon(가나다순)

| 후원 방법 |

본 연구소는 주간리포트를 제작하여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에 무료로 제공하며, 100% 후원을 통해 운영 됩니다. 이 사역에 동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구소 후원은 공익재단을 통해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가능합니다.

1. 기부금 영수증 발행 후원 계좌 및 안내 → [링크 클릭](#)

- 계좌 : 국민은행 343601-04-128846 (재)한빛누리(목회데이터연구소)

2.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필요하지 않으시다면 직접 계좌 송금으로 후원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계좌 안내 : 하나은행 203-910046-18604(목회데이터연구소)



| 미션 |

우리는 세상과 교회를 이루고 있는 이슈, 사고방식, 그리고 트렌드를 한국 교회 목회자와 리더십에게 알리는 '정치 중립/가치 중립의 공정한 팩트 탱크'로서, 사회 여론 조사, 공공 통계 등 데이터 기반의 통계 자료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교회-사회의 대화와 소통을 풍요롭게 하고 더욱 견고하고 온전한 의사 결정을 위해 '사실'에 입각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 협력기관 |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재) 한빛누리, 한국교회탐구센터, (주)기독교텔레비전(CTS)

| 섬기는 이들 |

김지철 목사 | 운영위원장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이사장)

류영모 목사 | 후원이사회 회장(한소망교회 담임목사, 한교총 대표회장)

신원하 교수 | 연구자문위원장(고려신학대학원 전 원장)

| 만든 이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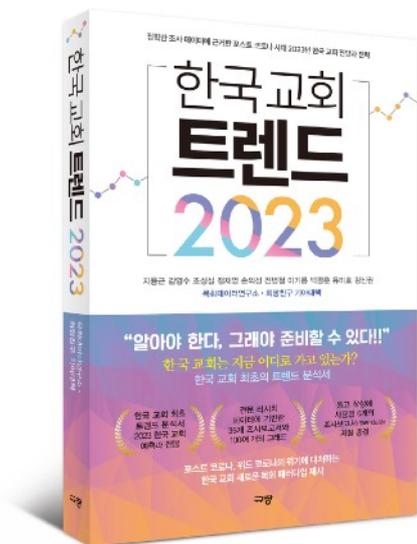
지용근 | 목회데이터연구소 대표 | ykji@mhdata.or.kr

김진양 | 목회데이터연구소 부대표 | marpro@mhdata.or.kr

민선영, 유영민, 송예슬, 김찬솔

| MOU 기관 |

(사)교회갱신협의회, 교회성장연구소, 기독교대한성결교회총회, 기독교한국침례회총회,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기독교통일지도자훈련센터(송실대학교), (재)기독교선교해불재단, 기아대책, (사)더조은세상,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교육원(고신),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교단총회, 마크로밀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문화선교연구원,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사)새길과새일, 아드폰테스, (사)아시아미션, 크리스찬타임스, 한국IFCJ가정의힘, (사)한국교회지도자센터(한지터),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한목협), 한일연합선교회



| 연구소 소식 . 「한국교회 트렌드 2023」 출간 |

- 목회데이터연구소와 희망친구 기아대책이 공동으로 조사 데이터에 근거하여 한국교회의 트렌드를 진단하고 예측한 「한국교회 트렌드 2023」 책을 지난 9월 15일 국내 최초로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출간된지 1달이 넘었는데도 아직까지도 종교부분 선두권을 달리고 있습니다. 내년도 목회 계획을 수립하는데 큰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부록으로 원고 작성을 위한 6개 조사보고서를 드립니다.)

보도 자료

책 구입 안내

Tel. 02-322-0726

E-mail. mhdata@mhdata.or.kr

Addr. [06250]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8길 17 현빌딩 2층 201호

Copyright © 2019 목회데이터연구소. All Rights Reserved.